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쏜다

安重根击毙伊藤博文

남영 그림 이정걸 홍만호 글

민족출판사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쏘다

安重根击毙伊藤博文

남영 그림 이정걸 홍만호 글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安重根击毙伊藤博文: 朝鲜文 / 李正杰, 洪满浩著; 南荣绘. —北京: 民族出版社, 2008. 5

ISBN 978-7-105-09326-7

I. 安… II. ①李…②洪…③南… III. 连环画—作品—中国—现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J228.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8)第072767号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8년 5월 제1판 2008년 5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787mm×1092mm 1/16 전지: 9.25 자수: 94천자

인쇄부수: 0001-1000부 값: 24.00원

ISBN 978-7-105-09326-7/K · 1391(조65)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8年5月第1版 2008年5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 9.25 字数: 94千字

印数: 0001-1000册 定价: 24.00元

ISBN 978-7-105-09326-7/K · 1391(朝65)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안중근

머리말

1909년 10월 26일, 한국인 안중근은 할빈역에서 한국과 중국을 침략한 원흉 이또 히로부미를 쏘죽여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그후 안중근은 러순의 일본감옥에서 재판받는 다섯달 가까운 나날에 법정을 특수한 전장으로 삼아 이또 히로부미의 15가지 죄상을 털거하면서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한 일본의 죄행을 단호히 성토했으며 이로써 할빈역 의거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일본정부는 감형을 미끼로 그를 회유하여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마저 수치스러운 실패로 돌아가자 국제공법을 무시하고 살인범이라는 죄명으로 그에게 극형을 언도하였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태연히 교수대에 올라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32세였다.

할빈에서의 의거를 안중근의 영웅적정신의 성공적인 구현이라 한다면 러순감옥에서 보낸 나날은 그의 위인품모의 완벽한 종지부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안중근은 비록 희생되었지만 그의 애국사상과 투쟁정신은 영원히 동아시아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그들을 항일투쟁으로 고무하는 한폭의 기치로 되었다.

일본은 2차대전의 전패국이다. 전쟁이 결속된지도 이미 60년이 지나 세계는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이또 히로부미의 망령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우익세력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기에 그림이야기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쏘다》를 출판하는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그 형상화 특성으로 하여 애국주의교양의 좋은 교재의 하나로 될수 있을것이라고 믿는다.

본 그림이야기의 작자 남영선생은 흑룡강신문사 소속 《치부정보신문》의 주필을 담당하였었고 지금은 중국서화가협회 리사이며 1급화가이고 중국서화예술촉진회 리사로 활약하고있다. 본 그림이야기의 원고(각색 홍만호)는 144폭의 그림으로 구성되었으며 1985~1987년에 완성되었다. 이 원고(복제품)는 또 1989년 7월에 한국 안중근기념관에 기증되기도 하였었다.

그후 이 그림이야기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출판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십여년이 지난 2005년 3월 남영선생은 근 1년간 본 원고를 다시 보충하고 수정하여 그림이야기의 내용이 보다 력사적진실에 접근되도록 하였다.

그림이야기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쏘다》의 출판에 즈음하여 이 책의 출판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리정걸
2006년 12월

前言

1909年10月26日，韩国人安重根在哈尔滨站击毙日本侵略韩国和中国的元凶——伊藤博文，震惊了东亚乃至整个世界。此后，在旅顺日本监狱收审的近5个月的时间里，他把法庭当做特殊战场，列举伊藤博文的15条罪状，严厉声讨了日本侵略邻国，破坏东洋和平的罪行，并以此证明了他在哈尔滨义举的正当性。日本政府对他软硬兼施，曾企图以减刑诱使其就范，但又遭到了可耻的失败。最后，日本政府不顾国际公法，决定以杀人犯的罪名把安重根处以极刑。1910年3月26日，安重根临危不惧，视死如归，泰然走上了绞刑架，英勇就义，时年32岁。

如果说哈尔滨的义举是安重根英雄精神的成功体现的话，他在旅顺监狱的日日夜夜可以说是他伟人风范的完美句号。著名的抗日英雄英年早逝，但他的爱国思想和斗争精神却活在东亚人民的心中，成了鼓舞人民进行抗日战争的一面旗帜。

日本是二战的战败国，战后已有60年了，世界发生了翻天覆地的变化。但是在日本，伊藤博文的阴魂不散，右翼势力还在嚣张。这个时期出版早期抗日英雄安重根的连环画，不能不说很有现实意义，并相信以其形象化的特点将成为很好的爱国主义教材之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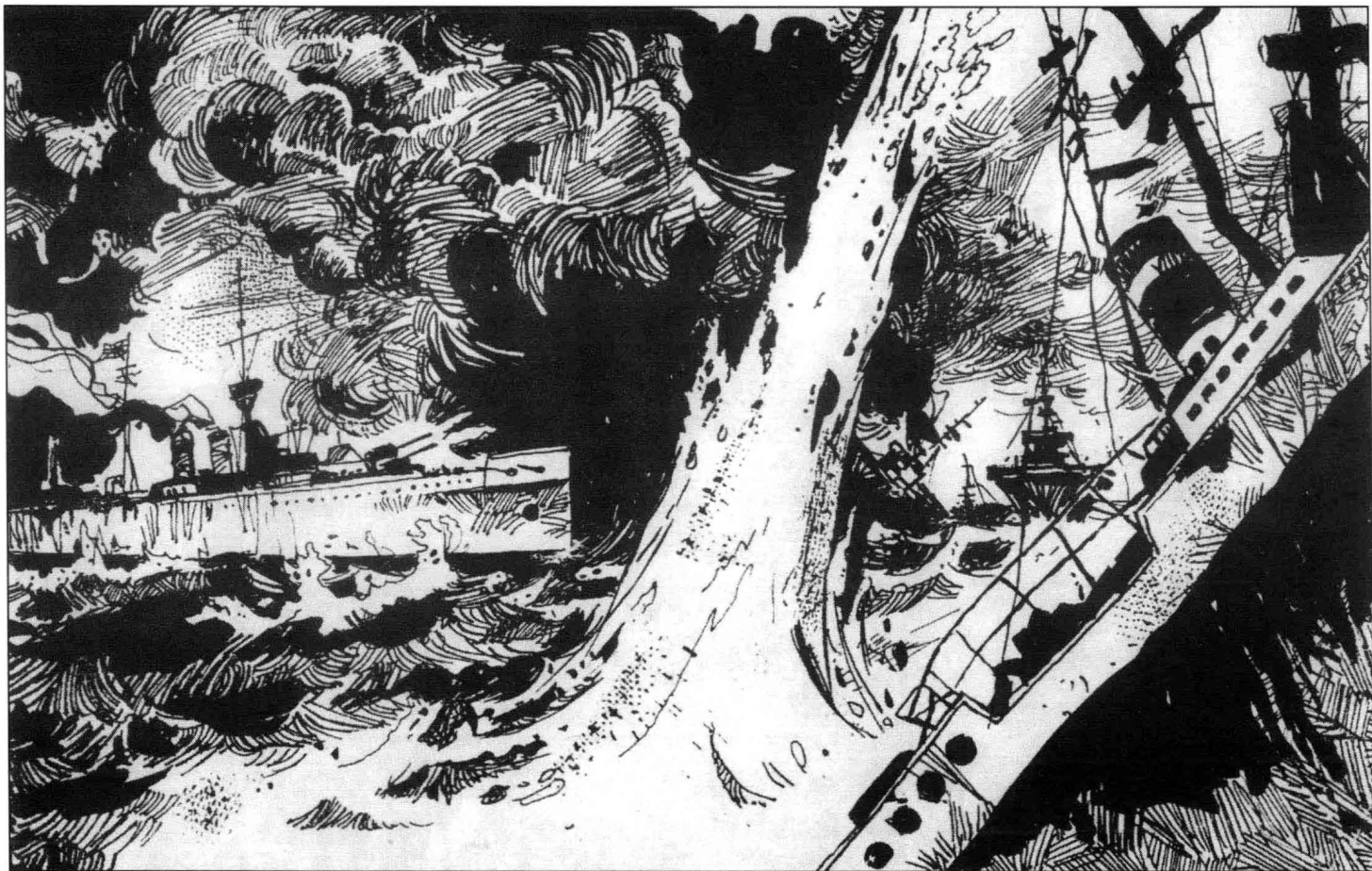
本连环画的作者南荣先生曾任黑龙江新闻社主办的《致富信息报》的总编辑，现任中国书画家协会理事，一级美术家，中国书画艺术促进会理事等社会职务。本连环画的原稿为144幅(脚本洪满浩)，早在1985—1987年完成。曾把此原稿(复制品)赠送给韩国安重根纪念馆。

但是由于种种原因，这套连环画没能正式出版。直到十几年后的2005年3月，经过作者一年多的辛勤劳动，把原稿重新做了认真的修改，以使其内容更加接近历史真实。

值此连环画《安重根击毙伊藤博文》出版之际，谨向关心和支持本书出版的各位人士深表谢意。

李正杰

2006年12月于哈尔滨



1. 원동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북을 쟁탈하기 위한 일본과 짜리로씨야간의 투쟁은 마침내 전쟁으로 이어졌다. 1904년 2월 8일, 일본함대는 한국의 인천항과 중국의 러순항에 정박하고있는 짜리로씨야의 함대를 돌연습격하였다.

在远东，日俄之间争夺韩国和中国东北的斗争愈演愈烈，最终引发了一场战争。1904年2月8日，日本舰队对停泊在韩国仁川港和中国旅顺港的沙俄舰队进行了突然袭击。



2. 1년 남짓 계속된 일로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1905년 9월 5일, 일본과 짜리로씨야는 미국에서 “포츠머스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하여 가일층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였다.

历时一年多的日俄战争，以日本的胜利而告终。1905年9月5日，日俄双方在美国签订了《朴茨茅斯和约》，从而日本帝国主义进一步取得了对韩国的控制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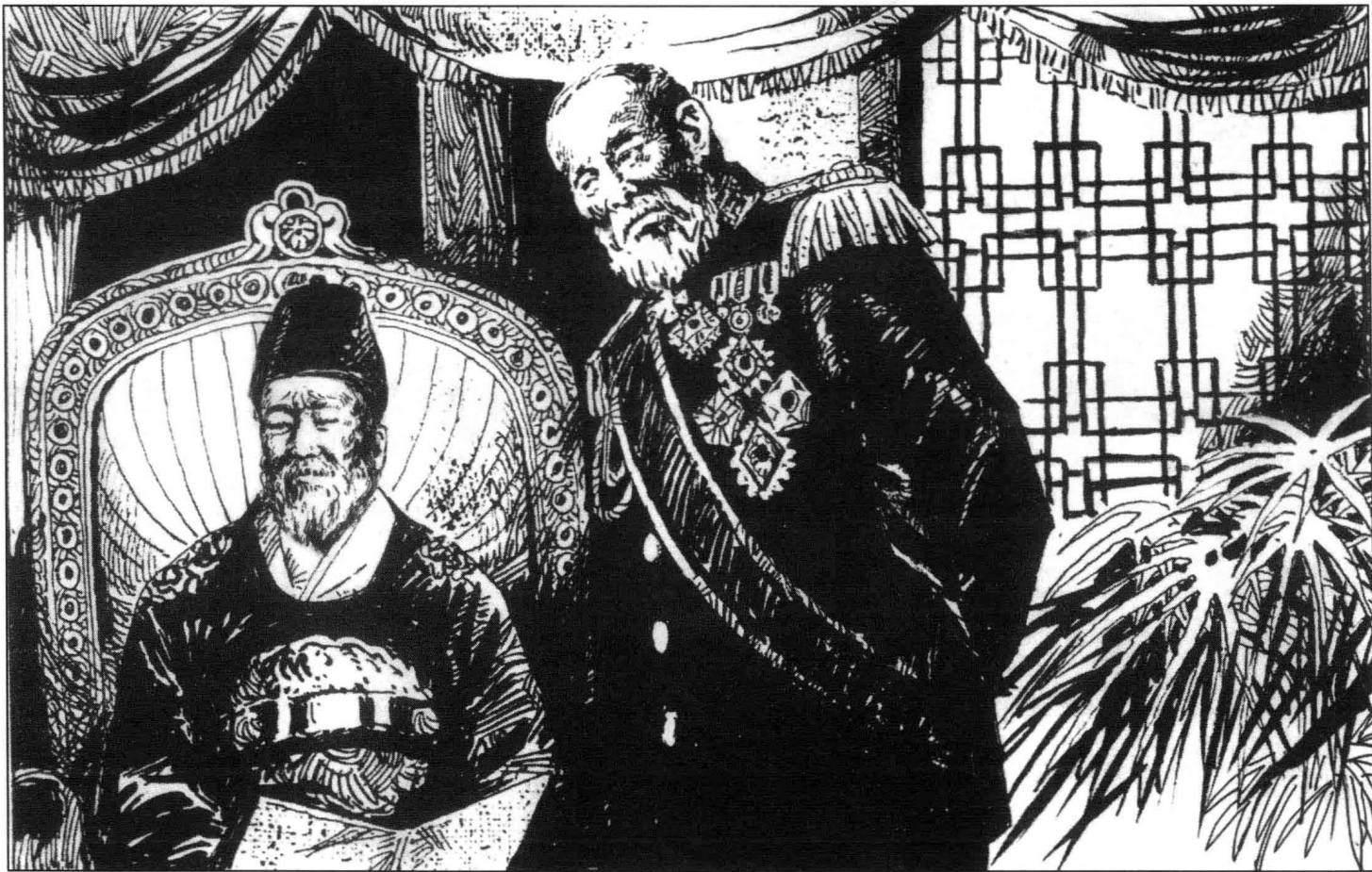
3. 일로전쟁의 나날, 매일같이 신문, 잡지를 보며 각국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쟁정세를 분석해오던 안중근은 전쟁의 결과가 약육강식의 리치임을 통감하며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였다.

日俄战争期间，安重根每天读报刊，研究各国历史，分析了战争的形势。看到弱肉强食的战争结果，安重根担忧了祖国的前途。



4. 1905년 11월 9일, 일본 추밀원 원장 이또 히로부미는 특파대사의 신분으로 일본 천황의 조서와 “보호조약” 문본을 지니고 하세가와사령관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서울로 들어왔다.

1905年11月9日, 日本枢密院院长伊藤博文以特派大使的名义, 携带日本天皇的诏书和《保护条约》文本, 与长谷川司令官一起大摇大摆地来到了首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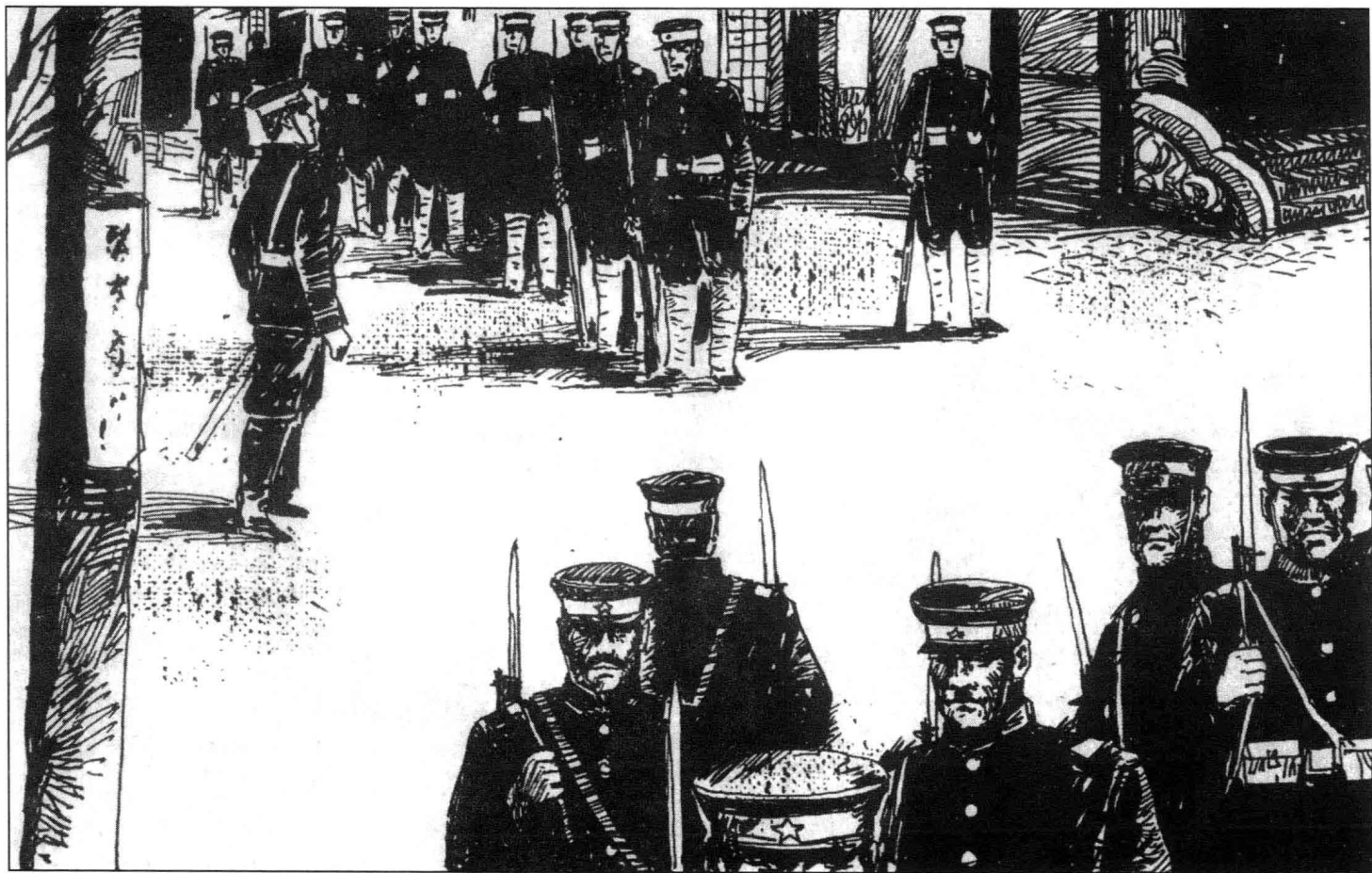
5. 이또 히로부미는 서울에 들어서기바쁘게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천황의 조서와 조약 문본을 내보이며 조약의 체결을 협박하였다. 한국의 모든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통감정치를 실시할데 관한 조약의 내용에 고종황제는 대경실색하였다.

伊藤博文一到首尔就去拜见高宗皇帝，并呈示诏书和条约文本，胁迫高宗签订条约。高宗看到条约的内容，不由大惊失色。因为条约的内容是日本要求朝鲜把一切外交权转让给日本，并实行统监政治。



6. 사안의 중대함을 잘 알고있는 고종은 “이 조약을 체결하는것은 나라를 잃는거나 마찬가지거나 짐은 종사를 따를지언정 이를 윤택할수 없노라.”고 말했다. 이에 이토는 회유정책을 써가며 허튼소리를 하더니 나중에는 “이 사안은 늦출수 없으니 속히 칙명을 내려주소.” 하고 올리냈다.

高宗深知事关重大，有气无力地说：“签订此条约如同亡国，关系到国家的社稷，朕不能允许。”伊藤软硬兼施，大放厥词后说：“此案不得延误，望阁下速传敕命。”



7. 이때 서울 시내와 궁성주위에는 일본군인들이 짝 깔렸으며 그 기세가 뿔뿔하고 무시무시하였다.
这时，首尔市内和宫城周围，到处有日军布阵，气势汹汹，咄咄逼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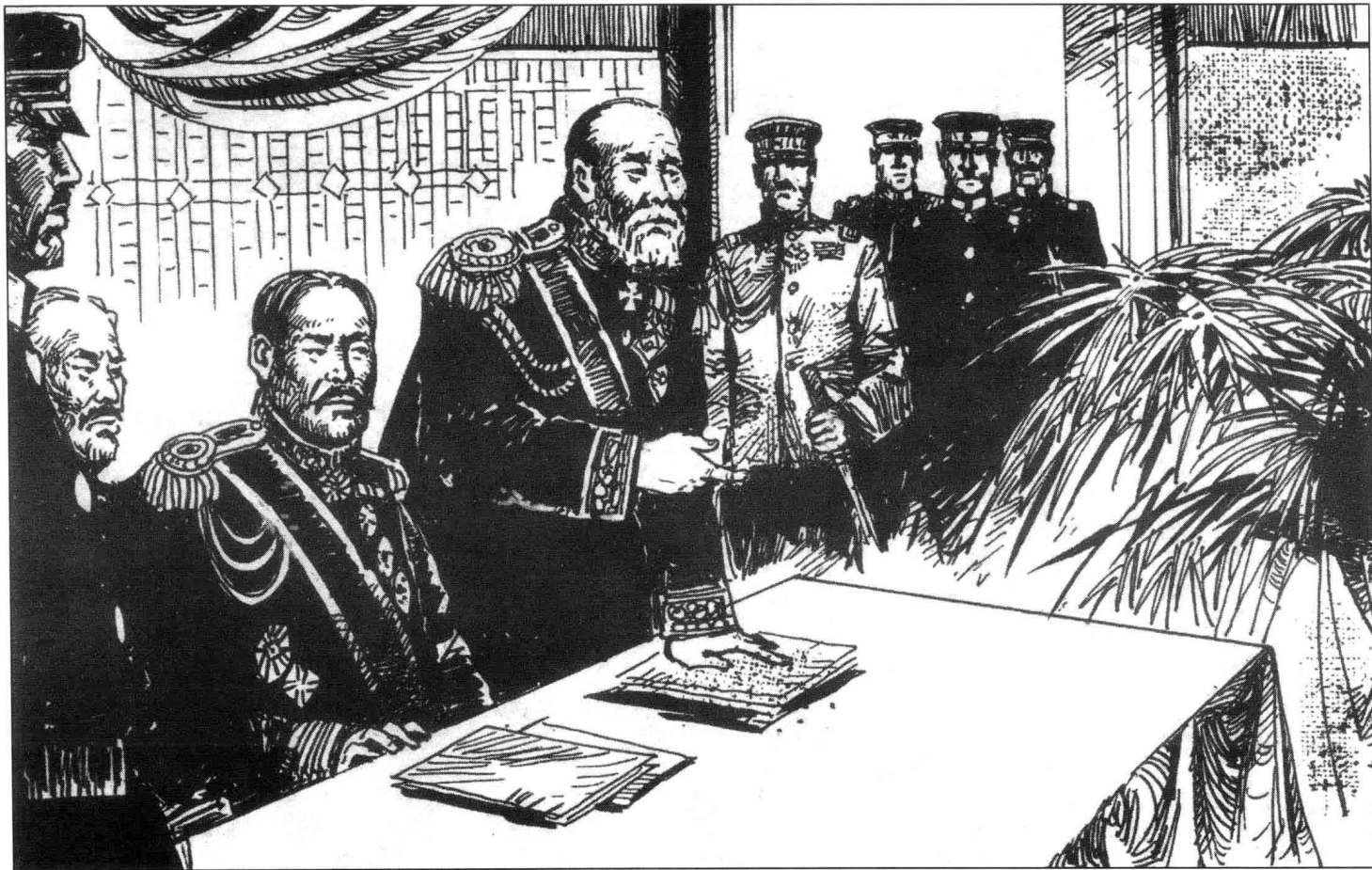


8. 여러 대신들은 이또의 협박에 못이겨 수옥헌으로 들어가 고종황제를 알현하였다. 고종은 여러 대신들의 뜻을 물었다. 그러나 대신들의 뜻은 두가지로 갈라졌다. 어전회의는 저녁 8시까지 계속되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고종은 하는수 없이 정부에서 살피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在伊藤的威逼下，诸大臣不得不拥进漱玉轩，参见高宗皇帝。皇帝问诸大臣的意见，诸大臣有意见分歧，莫衷一是。御前会议持续到晚上八点，毫无结果。最后，高宗下旨，由政府酌定。



9. 어전회의가 끝나자 별실에서 대기하고있던 하야시공사가 상의를 계속하라고 압박질렀다. 이때 이토가 헌병을 이끌고 별실에 뛰어들었다. “폐하께서 교지를 내리신 이상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御前会议刚刚结束，在贵宾室里等候的林权助公使强迫诸大臣继续协商。这时，伊藤带领宪兵闯进别室，说：“既然陛下有旨，我想听听诸位意见。”



10. 이토는 두눈을 희번덕거리며 조약에 대한 견해를 하나하나 지명해가며 대신들에게 물었다. 결과 한규설 등 세 대신은 반대했으나 리완용 등 다섯 대신은 찬성을 표했다.

伊藤横眉立目地挨个儿点名盘问对条约的看法。结果，韩圭嵩等三个大臣表示了反对，而李完用等五个大臣表示了赞成。



11. 이에 이또는 만족을 표시하며 “다수가결이니 참정대신께서 임금께 상주하여 속히 서명하도록 하시오.”라고 명하였다. “아니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순 없소이다.” 참정대신 한규설은 대성질호하며 수옥헌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인차 일본헌병들에게 잡혀왔다.

伊藤满意地说：“既然多数赞成，请参政大臣上奏皇帝，从速签字！”“不！我宁死也不能答应。”参政大臣韩圭高大声叱喝便奔向漱玉轩，然而被日本宪兵抓了回来。